



월은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8>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유교제자 형성

(726호 이어서) 그 범위는 사부대중은 물론 천룡팔부(天龍八部)까지에 이르니, 무슨 까닭인가. 모든 경이 시작할 때는 사부대중만 모였다고 소개하는데 끝날 때에는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이 모두 신수봉행(信受奉行)을 다짐하고 물러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제자집단을 분류할 때에 우선 외형적으로 보아 재가, 출가로 나누고, 출가대중을 다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로 나누고, 재가대중을 다시 신남(信男) 신녀(信女) 왕후(王侯) 사사(士庶)로 나누고 있다.

부처님 재세시에는 출가대중을 중심으로, 그 수행의 증승(增勝)함에 따라 평정

호교(護敎)와 신이(神異) 등이 추가되었으니, 그 이유는 불교는 토착화하려고 애쓰는데 기존의 도교(道敎)는 그것을 막으려 하니 한 바탕의 각력(角力=실력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여러 고승 대덕들이 평소에 닦은 도력과 법력을 다해 싸워서 이겨냈으니, 저간(之間)의 상황(狀況)은 불화법본내전(佛化法本內傳)에 전한다.

불화법본내전의 본 이름은 한현종개불화법본내전(漢顯宗開佛化法本內傳)이니,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십삼년(서기70)에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오면서 도교와의 마찰을 묘사한 내용이다.

부처님 재세시 출가대중 중심 수행 증승 따라 평정 사회 상황 맞춰 교단 유지 위한 호교 호법 논리 나와

(譯定)했으니, 이른바 십대제자설이다. 십대제자란 1.지혜(智慧)제일 사리불(舍利弗)존자, 2.신통(神通)제일 목건련존자, 3. 두타(頭陀=좌선수행하기)제일 가섭존자, 4.천안(天眼=멀리보기)제일 아나율존자, 5.해공(解空=공의도리틀이해하기)제일 수보리존자, 6.설법제일 부루나존자, 7.논의(論議)제일 가전연존자, 8.지계(持戒)제일 우비리존자, 9.밀행(密行=남모르게 좋은 일하기)제일 나후라존자, 10.다문(多聞=경전을 기억하기)제일 아난존자이니, 이 어른들이 당대의 교단을 관리하고, 교세를 진작시킨 진정한 대가들이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넓은 지역을 거치는 동안 사회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서 교단의 유지방법이 구성원의 조화로운 분위결식(分衛乞食=순방걸식)만으로는 어렵게 되었고, 교세의 유지방법도 일향(一向)에 아란야(阿蘭若)의 삼마제(三摩提)수행만으로는 어렵게 되었으니, 여기에는 주변에서 점진해 들어오는 이교도들의 공세도 있었지만 날로 발전해나가는 외론(外論)의 강성에 따라 전문적인 대응논리와 방어체계가 절실히 필요해졌으니, 이른바 호교(護敎) 호법(護法)논리이다.

그래서 불법의 동점기(東漸期) 전후해서 두드러지게 부각된 불제자의 목적에는

유교제자 유교제자(遺敎弟子)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그 어른이 남겨주신 교법(敎法)에 의해 불법을 배워나가는 제자들이라는 뜻으로서 위로는 역대조사로부터 아래로는 황공수렴지만 우리들도 그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직접 뵈었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불법을 배운 이들은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뜻에서 성문제자(聲聞弟子)라고도 하고, 혹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녔다는 뜻에서 상수제자(常隨弟子)라고도 한다.

이 유교제자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이며, 낱말이지만 부처님 생존 시에도 이미 부처님께서 예견(豫見)하신 바이니, 예컨대 모든 경에서 목전의 상수제자들을 상대로 갖가지 법을 설하시고는 반드시 당신께서 열반에 드신 뒤의 말법(末法)중생을 위한 말씀을 꼭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證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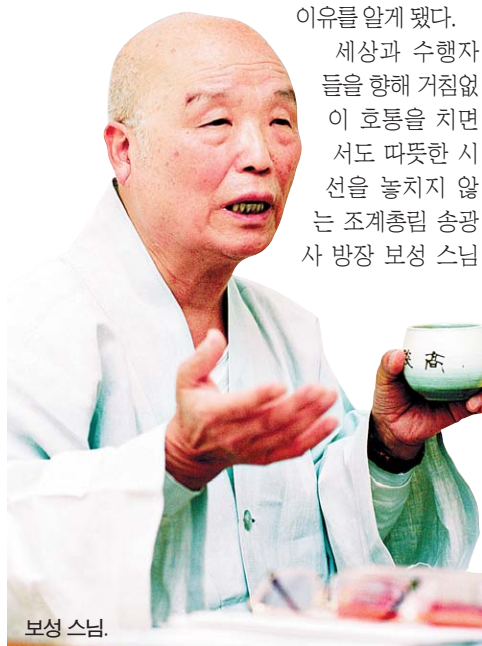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처님 안 계시는 세상에 태어나서 불법을 배운다는 애초로운 사연도 있겠지만 이 유교제자들의 활동여부가 부처님의 명백(命脈)인 혜교(慧敎) 호법(護法)을 이어가는 주체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각별하신 호법(護法)을 배부하셨다. **불선사 조실**

‘부처’만 남기고 다 쓸어라

보성 스님의 따뜻한 호통 담은 에세이 ‘나에게 가는 길 청소’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이 효봉 스님(1880~1966) 시봉할 때 얘기다. 하루는 효봉 스님 신발이 바뀌어 있어서 바로 놓아드렸다. 그런데 또 보면 거꾸로 놓여 있다. 속으로 ‘이 어른이 왼쪽 오른쪽 분간도 못 하나’ 하고 생각하면서 또 바꿔냈다.

그러던 어느날 효봉 스님이 말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만 놔둬라.” “스님은 오른쪽 왼쪽도 모르세요?” “내가 그걸 모를 리 있나.” “그럼 신발을 왜 반대로 놓으세요?” “다 이유가 있지.” “무슨 이유요?” “바로반 신이면 바깥쪽으로는 닳잖아.”



보성 스님

의 지혜와 가르침이 담긴 법어집 <나에게 가는 길 청소(淸素)>가 에세이 형식으로 출간됐다.

이 책에서 보성 스님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맑고 소박하게 가꿔간다면 그것이 참다운 나에게 가는 길이라며 이렇게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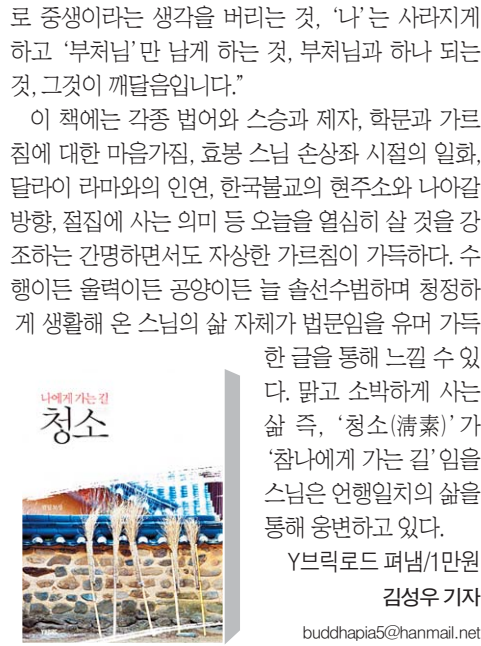
“간절히 남을 따라 찾지 마라. 짐집 나하고 멀어간다. 지금 내가 스스로 가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구나.”

여기서 ‘나에게 가는 길’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길이다. 그러나 스님에게 있어 ‘깨달음’이란 어려운 화두가 아니다. 일상의 언어로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다.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부처입니다. 스스로 중생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나’는 사라지게 하고 ‘부처님’만 남게 하는 것,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책에는 각종 법어와 스승과 제자, 학문과 가르침에 대한 마음가짐, 효봉 스님 손상좌 시절의 일화, 달라이 라마와의 인연,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절집에 사는 의미 등 오늘을 열심히 살 것을 강조하는 간명하면서도 자상한 가르침이 가득하다. 수행이든 율력이든 공양이든 늘 수선수법하며 청정하게 생활해 온 스님의 삶 자체가 법문임을 유머 가득한 글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맑고 소박하게 사는 삶 즉, ‘청소(淸素)’가 ‘참나에게 가는 길’임을 스님은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 웅변하고 있다.

Y브릭로드 펴냄/1만원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나에게 가는 길 청소

정토신앙의 ‘조용한 혁명’

법문 번역본 티베트어본 **아미타경** 최중남 외 역주(경서원 펴냄) 1만2000원

아미타불이 주관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신앙은 2500여 년 불교 역사와 함께 커다란 조류를 형성해 왔다. 인도에서는 2세기 때의 율수와 4세기 중엽의 세전을 거치면서 신앙적 골격을 잡았고 중국으로 전해져 크게 발전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토신앙은 관음, 미륵 신앙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불교 신앙으로 신봉되어 왔다. 이 같은 신앙은 남방불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북방불교에서 발전 전개 됐다. 기후

와 풍토 생활관습 등이 어우러지는 이 유일 것이다.

정토 신앙의 핵심 경전인 <아미타경>은 아미타 부처님과 그 세계를 설명하는 길지 않은 경전이다. 중국에서 구마라집과 구나발타 현장 등 대표적인 역경보살들이 번역했다. 그 후 주석서를 쓴 사람은 수 없이 많다.

현재 유통되는 <아미타경>은 한역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교 불전국역연구소가 법문과 티베트어본을 대조하며 오늘날의 어법에 맞게 번역 주해한 <아미타경>을 내놓은 것은 정토 신앙에 있어 ‘조용한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연태 기자

Don't know! 마음 비우는 길 찾기



마음 거울 청안 스님 지음 김명사 펴냄 1만2000원

“스님, 왜 굳이 한국불교를 알리려는 겁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청안 스님(원광사 주지)은 “인연”이라고 대답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신비하고도 깊고 푸른 눈을 가진 헝가리 출신 청안 스님은 송산 스님(前 회계사 조실, 1927~2004)을 만나서 불교에 귀의하고 스님이 된 그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말한다.

<마음 거울>은 2004~2007년 스님이 체코, 노르웨이, 프랑스 등지에서 열린 법회에서 법문 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카르마란 무엇인가요?” “스님, 저는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점이 저의 장애물입니다.” “모른다”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주시지요.”

유럽 도반들의 질문은 자유롭지만 날카롭다. 스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간이 만든 문제를 알고 있다”며 “무지로 인해 분노와 욕망이 생겼고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간다. ‘오직 모를뿐(don't know)’으로 마음을 비우며 살아야한다”고 방법을 제시한다. 현재 스님은 3년 전부터 헝가리에 유럽 최초의 한국식 사찰인 원광사(www.wonkwangsa.net) 건립 착수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등산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법호	운주사
4	인과경	현담	선
5	행복한 출근길	법륜	김영사
6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7	법륜 스님의 죽은죽설	법륜	정토
8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말모이미디어
9	절을 가져게 잘하는 법	청경	붓다의 마을
10	스님도 군대 가나요	지장	클리어마인드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불자의 긍지 · 수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시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지 사 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051)632-0064 / 011-847-1211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 016-629-1508
대 구 지 사	053)768-8008 / 016-813-8008	전 북 지 사	063)910-8977 / 011-9642-7733
총 청 지 사	043)732-5560 / 010-9422-8453	영 주 지 국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동부지사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남부지사	055)746-9778 / 011-870-0021
경남 서부지사	055)355-7472 / 011-9312-2228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강 대선사 범어집 **당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난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았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칭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랑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값 15,000원**

말게 지은 선사 **기우목동가**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말게 지은 선사의 기우목동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론과 주옥같은 선승으로 다시 보았다. **값 10,000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체목록

전등록 전5권 / 무문관 / 벽안록 / 천부경 / 금강경 / 심심명 중도가 / 반야심경 / 선문염송 전30권 중 12권 / 환단고기 전5권 범용선사심명 / 선가귀감 / 법상계 / 주머니 속의 심경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찻는 희다 / 기우목동가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복제로세살을복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